

## HEADLINE NEWS

### 무료 건강프로그램 「Wake Up New York」 시행 (뉴욕)

미국 뉴욕시는 온 가족이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료 건강프로그램 「Wake Up New York」을 7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등 3곳의 공원 야외에서 실시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3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 각각의 운동능력에 따라 초·중·고급의 3단계로 구분해 실시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걷기, 스트레칭, 호흡 등 유연성 및 근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강사들은 공인 자격증 소지자들로,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재미있고 안전한 운동이 되도록 시민들을 이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의 비영리 스포츠·건강 교육센터인 'Asphalt Green'이 실시한 것이다. 이 센터는 평생 건강과 운동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의 관리와 강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20년 넘게 시의 공원·여가국, 건강·정신위생국, 건강·병원재단과 협력하여 스포츠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해 왔다.

([www.nycgovparks.org/sub\\_things\\_to\\_do/programs/wake\\_up\\_ny/html/wake\\_up\\_new\\_york\\_2003.html](http://www.nycgovparks.org/sub_things_to_do/programs/wake_up_ny/html/wake_up_new_york_2003.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고령자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건물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동경)
- ② 「지역환경계획 2003」 시행 (호주: 뉴캐슬)

### 도시환경

- ③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인증라벨 부착사업 전개 (시애틀)
- ④ 환경보호 위해 디젤차량 운행 규제 (동경)
- ⑤ 폐기물 소각시설에 강제준수규정 대신 성과관리기준 제시 (워싱턴 D.C)
- ⑥ 대규모 행사시 쓰레기 무배출·재활용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

### 도시교통

- ⑦ 대중교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시)
- ⑧ 첨단장치를 이용해 상습 주차위반차량 단속 (시카고)
- ⑨ 「차 없는 다리 만들기」 추진 (부다페스트)

### 사회복지

- ⑩ 고령자를 위한 재택간호시설 확충 추진 (멜버른)
- ⑪ '방과후 프로그램' 야간까지 연장 시행 (모스크바)

### 행재정

- ⑫ 시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모집 (캔자스시티)
- ⑬ 소규모 문화시설에 개·보수 자금 지원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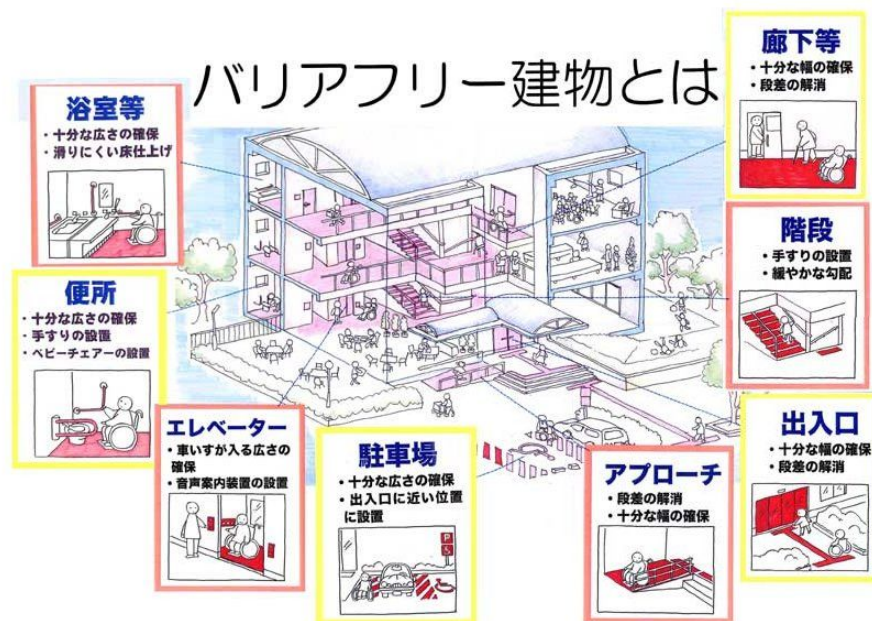
# 도 시 관 시 리

## 세계도시동향

### ① ‘고령자와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건물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barrier free(무장애)’ 건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실상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동경도 건축안전조례’,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등에 준하여 지도 및 권고 사항에 머무르고 있던 ‘barrier free(무장애)’ 관련 기준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칭)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의 기본 취지는 고령자,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지팡이를 이용하는 사람, 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부상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축물의 복도, 부지 내 통로의 폭이나 경사로의 구배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육아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유장소나 유아용 의자 설치 등을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都는 9월 25일까지 도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www.toshikei.metro.tokyo.jp](http://www.toshikei.metro.tokyo.jp))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② 「지역환경계획 2003」 시행 (호주: 뉴캐슬)

호주 뉴캐슬市的 장래 개발지침이 될 「지역환경계획 2003(Local Environmental Plan 2003)」이 올 8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계획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함께 공람, 지역심의회 등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기존의 「지역환경계획 1987」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지방정부 관할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계획으로, 市の 발전과 성장에 지침이 되는 모든 계획 관련 문서나 방법들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환경계획」에 의거하게 된다. 이 계획의 목표는 市중심지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건축물과 자연유적을 보호하고, 산업과 상업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모든 시의회가 준비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유지와 사유지의 용도를 규제하고, 인접한 토지 이용 분쟁을 완화시키고, 도시의 다양한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ww.ncc.nsw.gov.au/news/current/mrdata.cfm?MID=867&M=8&Y=2003](http://www.ncc.nsw.gov.au/news/current/mrdata.cfm?MID=867&M=8&Y=2003))

### ③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인증라벨 부착사업 전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的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효율적 물이용 제품 정보에 관심이 있으며, 구매 의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市는 'Friends of the Earth'와 협력하여 효율적 물이용 제품임을 인증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 환경청에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100여개의 공공단체, 민간기업, NGO 등의 적극적인 호응과 서명을 받았다.

市는 환경 보호, 안정적인 물 공급 유지, 점차 증대되는 상하수 처리비용 감당 등의 이유로 과거에 비해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市는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라벨 부착사업을 통해 향후 전국적으로 매년 2,730억 갤런 이상의 물절약 효과뿐만 아니라, 물 공급 및 처리에 소요되는 150억kW의 에너지절약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647](http://www.ci.seattle.wa.us/news/detail.asp?ID=3647))

### 4] 환경보호 위해 디젤차량 운행 규제 (동경)

일본 東京都, 사이타마(埼玉)현, 치바(千葉)현, 카나가와(神奈川)현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올 10월부터 디젤차량 운행 규제에 착수한다. 都是 1999년부터 '동경도 디젤차 NO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최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디젤차량 PM(입자상부유물) 기준 준수, 저공해차 도입, 자동차 환경관리 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PM 증대 연료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자동차 판매자에 의한 환경정보 설명 등을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PM 감소장치 보조, 규제준수차량 구입 보조 및 운자 알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운행 규제를 실시하고, 일정 수의 저공해차 보유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 규제는 오사카市나 고베市의 '클린 배송 실시', '배출기준 미달 차량의 유입 금지' 등의 제도로 파급되고 있다. (BUSRAMA INTERNATIONAL, 2003. 7)

### 5] 폐기물 소각시설에 강제준수규정 대신 성과관리기준 제시 (워싱턴 D.C)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운영주체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엄격한 배출기준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최근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市 자원생태국은 앞으로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에 관련규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소각시설 관리주체가 州의 대기오염 제한기준에 따라 성과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市의 이러한 변화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ww.ecy.wa.gov/news/2003news/2003-140.htm](http://www.ecy.wa.gov/news/2003news/2003-140.htm))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6] 대규모 행사시 쓰레기 무배출·재활용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적절한 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계획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로 인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매립지 부담을 유발하게 되자, 보다 혁신적인 쓰레기 무배출·재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쓰레기 무배출·재활용 프로그램은 첫째, 퇴비화가 가능한 종이컵, 종이접시 등의 재이용, 둘째, 병, 캔, 식용유 등의 재활용, 셋째, 여분의 음식을 노숙자에게 제공, 넷째, 퇴비화 및 재활용 쓰레기통 등 관련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관리, 다섯째,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시청소과가 처리 및 청소 수행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쓰레기 무배출·재활용 프로그램이 기존의 재활용 대책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www.sfgov.org/sfenvironments/articles\\_pr/2003/pr/081103.htm](http://www.sfgov.org/sfenvironments/articles_pr/2003/pr/081103.htm))

### 7] 대중교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통부와 'Regional Transit Authorities'는 州전역의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州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가상대중교통사업(Virtual Transit Enterprise)」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州전역의 18개 대중교통 사업체와 州교통부 내 대중교통 담당부서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사업자간의 상이한 시스템을 단일화시키고, 지식과 정보 및 유용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govtech.net/news/news.php?id=2003.08.14-64117](http://www.govtech.net/news/news.php?id=2003.08.14-64117))

### 8] 첨단장치를 이용해 상습 주차위반차량 단속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는 상습 주차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해 첨단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와 일련의 컴퓨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차 단속 차량에 장착해 주차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당일 기존 주차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차 단속 공무원은 신속하게 상습 주차위반차량을 파악하여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치가 도입된 이유는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 도입 및 주차 단속 공무원의 업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www.chicagotribune.com/news/local/nearnorthwest/chi-0308190300aug19.story](http://www.chicagotribune.com/news/local/nearnorthwest/chi-0308190300aug19.story))

### 9] 「차 없는 다리 만들기」 추진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시당국은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Lancdid(Chain Bridge) 다리에서의 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이 통행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다리 양 끝단에서 야외음악회, 불꽃놀이와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다리에서의 일시적 자동차 통행 금지는 다리를 폐쇄하여도 도시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시당국이 결정한 것으로, 당국은 관광 성수기와 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차 없는 다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버스 2대를 투입하여 인근 다리로 우회시켜 다뉴브강을 건널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 Lancdid(Chain Bridge) 다리: 건축된 지 150년이 된, Buda 지역과 Pest 지역을 잇는 사슬다리로서 부다페스트시 건설의 출발점이 된 다리임

([www.budapestsun.com/full\\_story.asp?ArticleId={310D1A436E574B9EAC893C7E30E7AC57}&From=News](http://www.budapestsun.com/full_story.asp?ArticleId={310D1A436E574B9EAC893C7E30E7AC57}&From=News))

### ④ 고령자를 위한 재택간호시설 확충 추진 (멜버른)

호주 멜버른시의 환경·지역사회·문화개발위원회는 최근 노령 거주자들의 재택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인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시노령인구를 위한 재택간호시설은 연방정부의 현행 기준과 제반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나, 다양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노령인구를 위한 재택간호시설의 지속적인 확보 및 유인을 위해 민간 요양원과 독립적인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노령인구가 자신들이 선택한 생활방식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시는 이러한 선택권에 화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www.melbourne.vic.gov.au/upload/ResidentialAged.pdf](http://www.melbourne.vic.gov.au/upload/ResidentialAged.pdf))

### ④ ‘방과후 프로그램’ 야간까지 연장 시행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시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시의 1,600여 개의 학교 중 219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학생들은 방과후에 활동할 스포츠, 음악 및 기타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제를 도와주는 기존의 ‘prodlyonka’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한 것으로, 과제는 물론 스포츠 분야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일련의 방과후 활동이 추가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맞벌이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청소년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약 1,980만 달러를 투입해왔으며, 학생들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ww.moscowtimes.ru/stories/2003/08/12/014.html](http://www.moscowtimes.ru/stories/2003/08/12/014.html))

### ④ 市の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 모집 (캔자스시티)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는 미주리대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생들에게 市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직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市정부의 업무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市정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해 각 부서에 대한 평가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보자들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고, 각 부서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는 매학기마다 대학교 3·4학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접, 평점, 자기소개서, 신원보증, 기능 등을 종합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참가 학생들은 지도교수나 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www.kcmo.org/manager.nsf/web/cityinterns](http://www.kcmo.org/manager.nsf/web/cityinterns))

### ④ 소규모 문화시설에 개·보수 자금 지원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현재 문화시설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규모 문화시설의 수리·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2번째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문화현장을 지원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체험을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는 최소 3년 이상 市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문화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모 시점부터 적어도 5년 동안은 시설을 임차해야 한다. 500석 이하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단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市소유 시설은 응모할 수 없다. 市의회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25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작년에는 14개 문화시설이 보조금을 받았다.

([wx.toronto.ca/inter/it/newsrel.nsf/7017df2f20edbe2885256619004e428e/7d56f28fd0ed895585256d790070f714?OpenDocument](http://wx.toronto.ca/inter/it/newsrel.nsf/7017df2f20edbe2885256619004e428e/7d56f28fd0ed895585256d790070f714?OpenDocument))